

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

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오전 3:09

• 위상전 체제라 동아시아

- 사리자리니 확산
- 베르사유 체제로 조정중계 생각했는데 사실상 군비 경쟁은 지속됨.
- 미국은 영국을 대체해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
→ 일본과 영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력 ↑
- 전쟁 위기도 2, → 해군 군비 축소와 중국 문제를 논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9개국이 참여한 워싱턴 회담.
 - ↳ 4개국 조약: 미영일프, 태평양에 식민지 영토를 유지한다.
 - ↳ 5개국 조약: 미영일프 + 이탈리아, 함대 보유 배율 규정. 군비를 축소한다.
 - ↳ 9개국 조약: 중국에 있던 영토들의 여권 유지. 단, 독점하지 않는다. → 중국 입장은 배제됨.

• 군벌테론 (제3인터내셔널)과 동아시아

-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이 됨.
- 여러 국가에 사리자리 사상이 확산
- 2차 군벌테론 회담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·식민지 문제가 부각됨.
 - ↳ 계급해방 - 민족해방
 - ↳ 신권은 혁명을 추구하는 군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힘
 - ↳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에 실망하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에게 세력망이 됨.
- 극동민족회의! 동아시아에 만들어진 사리자리 연합체.